

문화

일본 나오시마는 섬 전체가 미술관

특별기고



홍지영
광주비엔날레재단 홍보사업부장

일본의 해상국립공원인 세토 내해(内海)의 작은 섬 나오시마(直島)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 섬의 자연을 건축에 끌어들이 모든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땅 속에 설계한 지중(地中)미술관 때문이다. 자연광을 살리기 위해 산꼭대기에 살짝 드러난 창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오직 하늘에서만 채광창을 통해 건물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연간 50만명 찾는 관광 명소

지중미술관은 노출콘크리트 건축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 그는 섬 남단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串)을 부지로 선택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지형을 따라 땅에 묻힌 듯한 건축을 실현해냈다.

전 세계에서 연간 50만명의 미술애호가와 관광객이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 나오시마를 찾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의 교육·출판기업인 베네세그룹이 건립한 지중미술관은 클로드 모네(프랑스), 윌터 마리아(미국), 제임스 터렐(미국) 등 근·현대 서구 미술작가 3명의 대표작 9점을 영구전시하고 있다. 모두 자연과 빛을 주제로 한 작품이란 점이 독특하다.

인상과 화가 모네의 작품 '수련' 시리즈 5점은 하늘로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수련의 색상이 변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그 옆에는 개념주의 작가 윌터 드 마리아의 작품 '시간/영원함/시간없음'이 전시되고 있다. 지름 2.2m의 검은 화강암으로 만든 구와 27개의 황금빛 나무 기둥은 오직 빛을 시간대별로 태양빛을 다르게 반사하며 신성한 느낌을 준다.

거대한 콘크리트 천정은 벽과 일정한 공간을 두고 지지대로 매달아 마치 하늘에 매달려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자연 채광 설계, 소박함과 정갈함, 절

제 속에 감춰진 예술적 품위는 이 미술관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제임스 터렐의 작품은 프로젝터와 네온 튜브, LED로 어둠 속의 착시 현상을 이용, 전시실 입구와 안쪽에서 각각 전혀 다른 색상과 형태로 변해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관객 체험형 작품이다.

체류형 미술관인 베네세하우스도 꼭 둘러봐야 한다. 호텔과 미술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된 이 곳에서는 2010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브루스 나우먼의 설치작품을 비롯해 리처드 롱, 아니스 쿠발리스, 데이비드 호크니 등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호텔 앞 해변과 해안가 곳곳에도 작품이 설치돼 있다. 칼 아펠, 니키 드 생팔의 조각, 덴 그레이엄의 설치작품, 스키모토 하로시의 사진 등 18점의 야외 작품들은 자연의 일부가 돼 관광객들을 맞는다.

모네 등 거장 작품 영구 전시

과거 제련소의 폐기물로 물살을 앞둔 카가와현 나오시마는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활력이 넘치는 예술의 현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늘자 주민들도 달라졌다. 집집마다 멋스러운 문패를 달거나 화분, 미술품 등으로 골목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등 섬 전체가 예술의 천국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빈 집을 갤러리로 탈바꿈시키는 '이(家)프로젝트', 공중목욕탕을 작품화한 '나오시마탕 프로젝트' 등도 추진돼 현대 미술이 평범한 섬마을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 기업에 의해 추진된 지역 재생 프로젝트가 섬마을의 걸모습 뿐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까지 되살린 것이다. 문화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이다.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의 클로드 모네 전시실



▲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의 대표작인 구사마 야오이의 '호박'(Pumpkin) (나오시마 지중미술관 제공)

공연이 어렵다구요? 걱정마세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착한 해설사' 도입

윤동환·박찬환·손병호 등 참여

'공연을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0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각 공연마다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광주국제공연예술재단은 10월1일~1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 '착한 해설사' 제도를 도입했다.

착한 해설사는 매 공연 시작 전 3분여 동안 각 작품에 대한 해설과 관람포인트 등을 소개하게 된다.

2일 오후 7시30분 무대에 오르는 극단 '여행자'의 연극 '한 여름밤의 꿈'의 착한 해설사는 배우 윤동환씨가 참여한다. 윤씨는 이날 공연에 앞서 비닐하우스 극장에서 '배

우 윤동환의 드라마게임'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배우 박찬환씨는 5일 쿠바 현대무용 '말손'의 착한 해설사를 맡아,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 손병호씨는 6일 김매자 교수가 이끄는 창무회의 한구무용 '심청'의 해설을 맡는다. 특히 '심청'의 주인공 최지연씨가 손씨의 아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밖에 정율성 선생의 삶을 발레로 담아내는 이영애 발레단의 '소제의 바이올린'(13일)에는 정율성 선생의 딸인 정소제 여사가 착한 해설사로 참여한다.

이와함께 아와극(카밀라, 클리프 행어, 고래의 꿈) 등은 현장에서 착한 해설사를 선정,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62-511-1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 여름밤의 꿈 - 윤동환〉



〈말손 - 박찬환〉



〈심청 - 손병호〉

"무등가요제에 도전하세요"

내달 8일 종강축제 특설무대·박현빈·현숙 등 축하공연

예향 광주를 알리고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제6회 무등가요제'가 오는 10월8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구 도청 앞 종강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회장 김효중)가 주최하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초대 가수 박현빈·현숙·최유나·성진우·임수정·조아라 등 신인가수의 공연과 밸리댄스 공연 등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만 17세 이상, 48세 미만의 남·녀로 가수협회증이 없고 레코드 취임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 금상 1명 등 총 6명의 수상자에게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신인 가수 육성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1일까



〈박현빈〉

〈현숙〉

지 신청서를 (사)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사무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예선은 광주 KT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문의 062-529-77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과 점으로 표현한 '생명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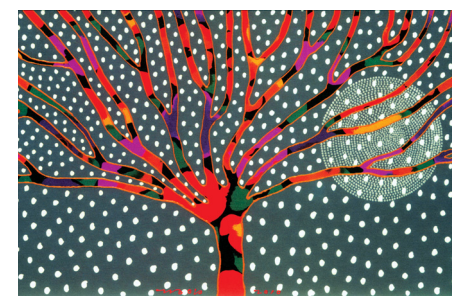
서양화가 정정임씨 초대전

10월 16일까지 서울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서양화가 정정임씨가 오는 10월16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흥미술센터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형상화된 생명이 미지'를 주제로 싹뿔 같은 선과 작은 점으로 생명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포착한 신작을 선보인다.

씨앗 크기의 조그만 점을 무수히 찍어 배경을 꾸몄고, 무수한 선으로 사물을 연결해



'이야기를 담은 나무'

전체적인 화폭의 안정감을 줬다.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그림으로 쓰는 일기'전 등 4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10-2631-19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옥중 시인 한국참여문학상

시조 시인 김옥중(호 남시조문학회 회장·66·사진)씨가 최근 공모한 제13회 한국참여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노숙자' 외 19편.

계간 참여문학사는 심사평에서 "김씨의 시조는 시적 이미지 창출이 빼어나고 독자와 호흡을 같이 하는 생명력이 있다"고 평했다.

김 시인은 담양 출신으로 1980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조문에대상, 광주문학상, T.S 엘리엇기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가람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http://bike.kjmedia.co.kr>

2010 Green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2010년 10월 31일(일) 오전 7시 30분 ~ 13시

광주광역시청(출발) → 광주공항삼거리 → 평동공단 →
 니주동신대학교 → 삼거교차로 → 호남대학교(도착)

종목
 로드레이스
 (경쟁 46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후 원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 광주서부경찰서 · 광주광신경찰서 · 니주경찰서
 문 의 | 062-220-0541